



더불어민주당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학운동 일대에서 거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택 후보 측 제공>



조국혁신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지산동 무등산 동원사 어르신 큰잔치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환 후보 측 제공>

임택 vs 김성환 8년 만의 '리턴매치'

6·3 지방선거 격전지

<3>광주 동구청장

민주당 임택, 구정 성과 바탕 '3선 도전' 혁신 김성환, 도심 활성화 강조 세 걸립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현직 구청장과 전직 구청장 간 8년 만의 리턴매치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3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택 후보와 과거 구정 경험을 내세워 설욕전에 나선 조국혁신당 김성환 후보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임택 후보는 재임 기간 이뤄낸 도시재생 성과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고리로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강조하며 표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무안 출신인 임 후보는 7대 광주시의원 3·4대 동구위원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장,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지방자치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당 김성환 후보를 꺾고 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임 후보는 생활 속 불편 해소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주차난 해결과 돌봄·문화 정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으로 ▲생활 불편 해소와 일상 속 주민 행복 실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을 제시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주차장 조성, 공유주차 확대, IoT 기반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빈집 정비 등을 약속했다.

또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

주관을 유치해 동구를 국가급 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용한 연중무휴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임택 후보는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주택 수리 지원과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투리 공간을 생활정원과 동네주차장으로 전환해 도시의 기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김성환 후보는 구청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도시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론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보성 출신인 김 후보는 노무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 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민선 6기 광주 동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 의당 후보로 당선된 뒤 2018년 지방선거 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40.40%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며 53.92%를 얻은 임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21·22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이병훈·안도걸 후보에게 밀려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올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김 후보는 동구청장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아 임 후보와 다시 맞붙게 됐다.

김 후보는 ▲총장로 레트로-뉴트로 특화타운 조성 ▲주차면 1천면 이상 확대 ▲푸른길공원 브랜드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 ▲상권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타운 조성, 육아·교육 지원 확대, AI 기반 빅데이터 지역 발전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유치, 책 복합문화관 건립 등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후보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동구는 제가 시작했던 인구 증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외하고는 도시 발전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동구를 맡겨준다면 강력한 추진력으로 동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기자

민주 중진들, 광산을 임문영 총력 지원

조정식 "조정식 AI전략 설계 핵심 참모" 서영교·김영진·황정아 "미래 이끌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방문해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반기 국회의원 후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인재입워위원회 부위원장, 황정아 과학

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임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임 후보와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 광산을 지역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정식 의원은 "임 후보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라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AI 전략을 가장 가까이에서 설계해온 핵심 참모"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주는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임 후보는 국가 인공

지능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AI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이라며 "광주의 미래 첨단 산업 발전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임 후보의 전략공천 배경을 설명하며 국가 AI 전략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영·호남에 각각 AI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임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역 발전 전략을 실제로 설계하고 실행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황정아 의원도 임 후보의 정책 역량에 의미를 부여했다. 황 의원은 "임 후보는 AI 전략 지도를 짜온 사람"이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전략을 함께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와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문영 후보는 "광주정신 위에 AI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세워 광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중앙 정치권과 협력해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혁신 전남도당, 최해국 대변인 해임 '李大통령 전과 기록 공개' 재차 사과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 전과 기록을 공개한 최해국 도당 대변인을 해임했다.

혁신당 전남도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논란이 된 SNS 게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과 전남도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최 대변인을 해임했다"며 "공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의 언행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도민과 당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책임정치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소통과 공보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도장 인쇄날인, 문제없다."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8.)

합헌 판단 이유 1: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하여 위조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합헌 판단 이유 2: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

합헌 판단 이유 3: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발문자수·대기시간 예측 곤란"

합헌 판단 이유 4: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사인을 날인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것"

*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국선거관리위원회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무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노은준